

블로거들의 비방 그리고, 블로그 폐쇄

난 블로그를 시작한지 한달정도 되었다. 다른 브로거들은 어떤 글을 남기는지, 또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공부중이다. 나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라면 다른사람에게도 유용하다고 판단 되기에,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블로거들은 추천링크도 걸었다.



얼마전, 나에게 있어 스승과도 같은 델버님의 블로그(<http://nhappy.net>)가 문을 닫았다. 델버님의 My Story Written 블로그는 태터툴을 이용한 여러가지 팁과, 모듈을 자작하여 공개하고 있던 유용한 블로그 였다. 블로거들은 이 사건을 통해 뭔가 느끼는것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서 일부를 인용한것이다.

1. 블로그가 살아있어도 답글이나 업데이트는 없을 겁니다.
2. 댓글 다셔도 이제는 그에 대한 답변을 다는 일은 없을 겁니다.
3. 태터 소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질문하셔도 답변 안답니다.
4. 태터 소스 관련 글들 다 삭제합니다. 꼭 제가 무슨 잘못을 한것 같은 글들이 보이네요.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매뉴얼도 다

삭제합니다.

5. 스스로 하시다가 못하시는 건 제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만든 기능을 써달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제가 하자 있는 물건 팔아먹어서 피해를 드린것입니까?

6. 태터 기능과 관련된 링크나 매뉴얼 등등 링크거신 분이나 제 주소 링크 거신 분들 모두 삭제해주셨으면 합니다.